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2025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생활거점형 꿈다락 영덕 결과자료집





CONTENTS

1. 사업소개

- 2025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생활거점형
- 2025 <꿈다락 문화예술학교>생활거점형_영덕

2. 프로그램

기존프로그램

- (기존 가) 청춘 힐링 실버 발레
- (기존 나) 새싹하모나이즈

신규프로그램

- (신규 가) YoungDrum
- (신규 나) 다시, 이곳을 그리다

3. 이 사업을 마치며

1. 사업소개

2025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생활거점형

2025 <꿈다락 문화예술학교>생활거점형_영덕





2025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생활거점형

‘누구나, 더 가까이 누리는 문화예술교육’을 목표로, 그동안 꿈다락 토요문화학교(2012~2022)와 직장인·신중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2019~2022)은 아동·청소년과 가족, 성인 등 다양한 시민이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는 사업을 하나로 묶어,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사업인 ‘꿈다락 문화예술학교’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이를 통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각자의 삶의 단계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사업이 확대되며 지역별 운영 경험이 쌓이자, 2025년부터는 꿈다락 문화예술학교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지원하게 되었다. 한 번쯤 경험해보는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꿈다락’을, 문화예술교육이 일상 속에서 꾸준히 이어지기를 바라는 지역에는 ‘생활거점형 꿈다락’을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지역마다 문화 환경과 여건이 다른 만큼, 각 지역에 맞는 방식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이어가기 위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중 생활거점형 꿈다락은 주민들이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집 가까운 생활권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업이다. 단순히 체험으로 끝나는 수업이 아니라, 지역의 공간과 이야기, 사람들의 관계를 교육 과정에 담아내며 문화예술이 일상 속에 스며들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생활거점형 꿈다락은 문화예술교육이 한 번의 경험에 그치지 않고, 지역 안에서 차곡차곡 쌓이며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모델이다.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사업개요

- 사업명 :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생활거점형
- 사업기간 : 2025년 3월 ~ 12월 ※ 운영기간: 5월~12월
- 사업목적 : 지역 내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거점 양성, 자생적 문화예술교육 기반 마련
- 사업대상 : 지역 주민
- 지원대상 : 교육공간 보유, 지역 내 중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사업 설계(재정 포함), 우수한 콘텐츠 개발이 가능한 기관·단체·시설 등
- 지원내용
 - 일상생활권 내 생애주기별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운영모델 개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개발·운영 지원
 - 거점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및 확산을 위한 지원
- 지원방식
 - 3년간 연속 지원을 통한 지역 내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정착 및 확산
 - ※ 1년차 운영 종료 후 평가(현장 모니터링, 컨설팅, 평가 등)를 통해 2~3년 연속 지원 결정
- 지원조건
 -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공간 보유
 - 3년간 연속 지원할 수 있으며, 1년차 운영 종료 후 평가를 통해 결정
- 추진방식: 운영기관 공모 및 선정,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 선정 및 지원(최장 3년), 자생적 문화예술교육 플랫폼 조성



추진방향

- 지속가능한 운영모델 확보
 - △물적·인적 자원(교육공간 확보, 예술가 파트너십 구축 등), △콘텐츠 자원(생애주기 및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재정자원(수익 창출·후원 모델 및 외부 공모 연계 등)

○ 중점 추진 방향 ※ 거점별 세부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자율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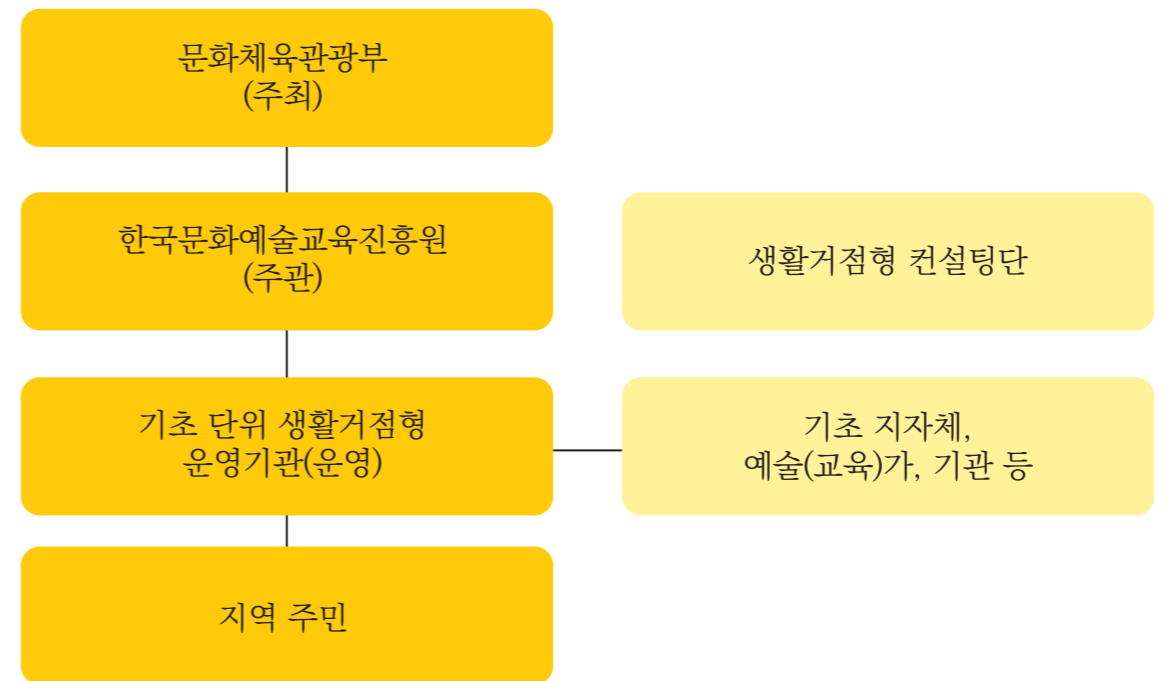
구분	추진 방향	추진 전략	추진 과제(안)
1	공간 확보 및 인프라 구축	지역문화예술교육 거점공간 확보 및 활성화	- 전시·창작·공연발표 등 다양한 교육이 가능한 공간 확보 필요 - 기존 교육공간 활용 및 공공·민간 협력 통한 공간 확보
2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수요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대상별(생애주기), 수준별(초·중·고급), 목적별(프로젝트) 교육과정 마련 - 지역 주민 및 세대 간 소통 가능한 교육 콘텐츠 개발 - 다양한 장르(음악·미술·공연·디지털미디어 등) 융합 프로그램 기획 - 디지털 기술·매체를 활용한 예술교육(비대면, STEAM, AI 등) 도입
3	인적 자원 확보 및 네트워크 구축	예술교육 전문가 및 지역 인력 양성	- 지역 예술교육가·예술가의 파트너십 및 역량 강화 - 운영 전담인력 구성 및 지역 내 교육기관·단체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예술교육가·주민 간 협업 모델(주민강사제도 등) 개발
4	지속 가능한 운영모델 확보	자립 운영 모델 개발 및 재정 안정화	- 다양한 수익형 프로그램 개발(강좌·워크숍·공연·기념품·플리마켓 등) - 지역 기업·민간 후원 유치 및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재정 지원 확보 - 정부·지자체 및 민간 공모사업 적극 활용
5	커뮤니티 활성화	지역 주민 참여 및 공동체 형성	- 주민 참여형 프로젝트 운영(공동 창작·발표, 동아리 활성화 등) - 정부·지자체 연계 예술을 통한 지역 문제 해소 및 가치 창출 활동 - 주민 주도형 운영 구조 도입(운영위원회 등)
6	홍보 및 아카이빙 활성화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 SNS, 홈페이지, 유튜브 등 온라인 홍보 활성화 - 지역 문화예술교육 기록 및 아카이브 구축 -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성과분석을 통한 대외 홍보 및 피드백

○ 연차별 주요 추진 내용

	도입기(1년차)	성장기(2년차)	안정기(3년차)	자립기(4년차~)
핵심 목표	선도적 프로그램 기획 개발	확장과 발전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여 영향력 극대화	외부 지원 없이도 독립 운영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
핵심 목표	기반 구축 및 인식 확산, 핵심 이해관계자 참여 유도	프로그램 확대 및 운영체계 정비	안정적 운영 및 지속가능성 확보	독립적 운영체계 구축 및 확장
추진 방향	시범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분석, 협력 파트너십 형성	참여 대상 및 프로그램(콘텐츠) 다각화, 지역사회 연계 확대	브랜드 가치 확립 및 대외 신뢰도 강화	자체 수익모델 구축 (유료서비스, 기업협력 등)



추진체계



추진 주체	주요 역할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 총괄 및 정책방향 수립 및 관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사업 정책 방향에 따른 세부 계획 수립 및 기획·운영 • 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공모/보조금교부·정산 등), 사업관리
생활거점형 컨설팅단	• 현장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 분석
생활거점형 운영기관	•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전담인력 구성 필수) • 수요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개발 및 실행 • 지역 내 협력관계를 통한 효과적인 지역 자원 조사, 발굴 추진 • 사업추진상황보고 및 정산·실적보고
기초 지자체	• 지원 주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적극적 협력 지원(예) 지역축제 연계 등



2025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생활거점형_영덕

영덕이 생각하는 '생활거점형'이란?

영덕의 생활거점형 꿈다락은 특정 공간 하나를 거점으로 삼는 방식이 아닌, 지역의 생활 환경과 관계망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지속·확장되도록 작동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 영덕 생활거점형의 기본 인식

- 인구소멸 지역 특성상 문화 접근성 격차 해소가 필수 과제
- 읍·면 단위로 분산된 구조로 인해 이동의 어려움이 교육 지속성에 직접적 영향
- 단절 없는 배움을 위해 생활권 중심 문화예술교육 허브 필요
- 일회성 체험이 아닌 지속되고 누적되는 문화예술 경험 기반 확보 필요

영덕 생활거점형의 '거점 역할' 정의

영덕에서 말하는 '거점'은 공간이 아니라 역할과 구조이다.

◎ 거점의 핵심 역할

- 지역 문화예술교육 플랫폼 역할
 - 생활권 - 학교 - 지역기관을 연결하는 교육 중심 네트워크 구축
- 과정 전체를 지원하는 운영 구조
 - 발굴 → 교육 → 활동 → 환류로 이어지는 생태계형 구조 조성
- 지역 예술가·강사 기반 마련
 - 지역에서 활동 가능한 예술가 발굴·육성
 - 정기 역량 강화 워크숍을 통한 안정적 강사 생태계 형성
- 생애주기형 문화예술교육 체계 구축
 - 아동·청소년부터 중장년·노년까지 지역 안에서 평생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구조 형성

2025 영덕 생활거점형의 차별성

◎ 영덕만의 특징

- 지역 스토리 기반 교육 콘텐츠 : 지역의 삶, 환경, 기록, 이야기를 교육과 연결
- 과정·관계 중심의 밀착형 교육 방식 : 성과보다 과정에 집중 참여자 한 명 한 명의 감정과 성장을 중심에 둔 운영
- 지역 환류 구조의 시작 : 교육에서 나온 결과물이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가 다음 교육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 형성



사업개요

○ 사업명 :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생활거점형 (영덕)

○ 사업기간 : 2025년 6월 ~ 12월

○ 사업추진 배경

- 영덕군은 읍·면 단위로 생활권이 분산되어 있고, 대중교통 여건이 취약하여 기존 문화예술교육 참여에 지속적인 어려움이 존재함
- 단발성·이동 중심 문화예술교육 방식으로는 교육의 지속성과 누적 효과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지역 주민이 언제든지, 생활 속에서 예술을 만날 수 있는 구조로서 '생활거점형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운영 필요성이 제기됨

○ 사업목적

- 영덕의 지역 여건을 반영한 생활권 중심 문화예술교육 거점 운영
- 아동·청소년, 중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운영 구조 구축
- 프로그램 단위 운영이 아닌, 지역 안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지속·확장되는 구조 형성

○ 사업대상 : 영덕군 지역 주민

○ 사업내용

- 영덕군의 읍·면 단위 분산 구조와 이동 여건을 고려한 생활권 중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의 삶·환경·이야기를 교육 과정에 반영한 과정 중심 문화예술교육 기획·운영
- 기존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공간을 활용한 현실적인 생활거점형 운영 구조 적용
- 주민 간담회, 수요조사, 오픈클래스 등을 통해 지역 기반 교육 내용 도출 및 운영 반영



프로그램

○ 기존 프로그램

(기존 가) 청춘힐링 실버발레: 노년대상

- 노년층을 대상으로 신체 움직임과 예술 활동을 결합해 정서적 안정과 일상 활력을 회복하는 발레 기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존 나) 새싹하모나이즈: 아동대상(초등1~6)

- 아동을 대상으로 음악을 통해 자기 표현과 협업 경험을 키우는 기초 음악 중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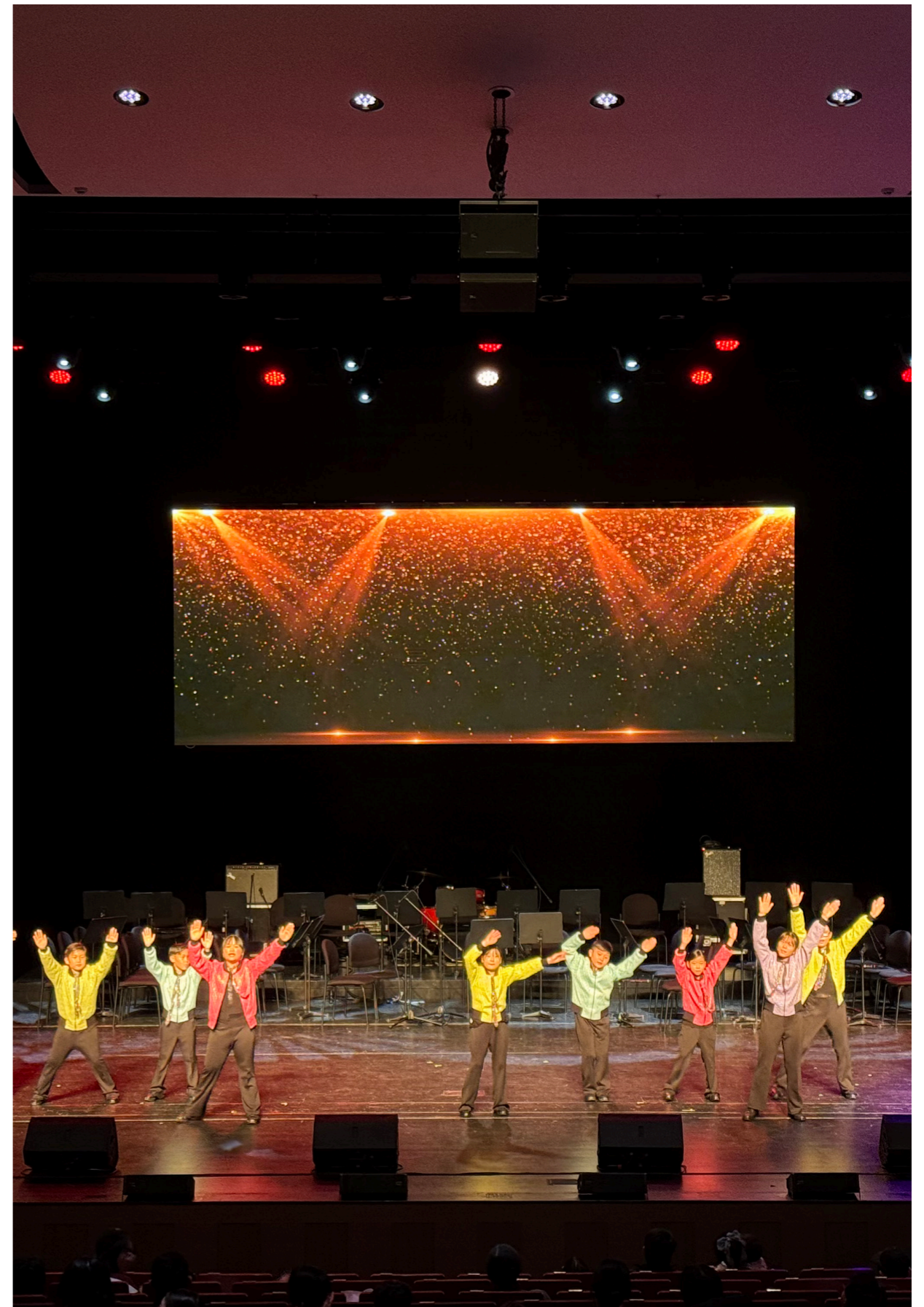
○ 신규 프로그램

(신규 가) YOUNGDRUM: 아동청소년 대상(초등2~중등)

- 청소년이 리듬과 퍼포먼스를 매개로 에너지와 창의성을 표현하며 공동체 감각을 기르는 드럼라인 기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신규 나) 다시, 이곳을 그리다: 중장년(40대~60대)

- 중장년층이 지역의 기억과 삶의 이야기를 예술로 기록하며 현재의 삶을 성찰하는 시각예술 기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2. 프로그램

기존프로그램

- (기존 가) 청춘 힐링 실버 발레
- (기존 나) 새싹하모나이즈

신규프로그램

- (신규 가) YoungDrum
- (신규 나) 다시, 이곳을 그리다





기존프로그램:(기존 가) 청춘 힐링 실버 발레

○ 프로그램 개요

청춘힐링 실버발레는 영덕군 노년층을 대상으로, 발레의 기본 움직임을 바탕으로 한 신체 활동과 예술적 표현을 결합하여 신체 기능 유지와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무리하지 않는 동작 구성과 반복 학습을 통해 신체 부담을 최소화하고, 음악과 움직임을 매개로 일상 속 활력 회복과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였다.

○ 운영기간 및 일정

- 운영기간 : 2025년 7월 ~ 11월
- 운영횟수 : 총 25회
- 운영방식 : 주 1회 정기 수업
- 수업시간 : 회차당 180분
- 운영장소 : 영덕생활문화공간 3층

○ 강사진 구성

- 주 강 사 : 김명훈, 김현지
- 강사진 역할
 - 노년층 신체 상태를 고려한 발레 기반 움직임 지도
 - 참여자 개인별 컨디션에 따른 동작 조정 및 안전 관리
 - 정서적 교감과 참여 지속을 위한 수업 분위기 조성

○ 참여대상 및 인원

- 참여대상 : 영덕군 지역 노년층
- 참여인원 : 총 25명

○ 주요 교육 내용

- 발레 기본 동작을 응용한 스트레칭 및 신체 이완 활동
- 음악에 맞춘 간단한 동작 연결과 리듬 움직임
- 신체 감각 회복을 위한 균형·호흡 중심 훈련
- 참여자 간 교류를 유도하는 소그룹 움직임 활동



강사소개

○ 주강사 김명훈

- 용인대학교 무용학과 박사 졸업
- 2023. ~ 2024.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비바청춘 트롯발레 강사
- 2013. ~ 현재. 와이즈발레단 공연 참여
- 1999. ~ 2024. 안양초등학교 발레 강사

○ 김현지

- 한성대학교 무용학교 졸업
- 2024. ~ 현재. 더블유 발레성인 취미 발레 강사
- 2024. 05 ~ 08. 비발레 학원 성남 학원 운영 및 강의
- 2021. ~ 2022. 메시아컬처스튜디오 블랙스완 성인취미 발레 강사





○ 세부프로그램 일정

회차	주제	주요 내용	일시
1	오리엔테이션	자기소개를 통한 라포 형성	07.07.(월) 18:00~21:00
2	나의 신체 알아보기	신체 감각 인식 및 자기 수용	07.14.(월) 18:00~21:00
3	타인과 교감하기	교감 활동 및 친밀감 형성	07.21.(월) 18:00~21:00
4	발레와 친해지기 ①	발레 마음 이해 및 이야기 만들기	07.28.(월) 18:00~21:00
5	나의 몸 이해하기	유연성·근육·관절 움직임 인식	08.04.(월) 18:00~21:00
6	발레와 친해지기 ②	발레 기본 용어 이해	08.11.(월) 18:00~21:00
7	발레 팔 동작	기본 팔 포지션 실습	08.18.(월) 18:00~21:00
8	팔 동작 응용	음악에 맞춘 팔 동작 표현	08.25.(월) 18:00~21:00
9	발 동작·걸음걸이	기본 발 포지션과 걸음걸이	09.01.(월) 18:00~21:00
10	발 동작 응용	간단한 발레 루틴	09.07.(일) 14:00~17:00
11	발레 감상	발레 공연 영상 감상	09.15.(월) 18:00~21:00
12	발레 성찰	발레 인식 변화 나누기	09.22.(월) 18:00~21:00
13	왈츠 스텝	왈츠 박자 이해 및 스텝	09.29.(월) 18:00~21:00
14	왈츠 창작	2인 1조 왈츠 동작 창작	10.13.(월) 18:00~21:00
15	현장학습	댄싱 노원 퍼레이드 관람	10.20.(월) 18:00~21:00
16	현장학습 소감	현장학습 경험 나누기	10.27.(월) 18:00~21:00
17	음악 선정	성과발표회 음악 선정	11.03.(월) 18:00~21:00
18	창작 ①	발레 동작 창작	11.10.(월) 18:00~21:00
19	창작 ②	안무 실습 및 작품 구성	11.13.(목) 18:00~21:00
20	작품 연습 ①	창작 작품 연결·수정	11.14.(금) 18:00~21:00
21	작품 연습 ②	작품 완성도 향상 연습	11.15.(토) 18:00~21:00
22	소품 제작	작품 소품 제작	11.17.(일) 18:00~21:00
23	작품 완성	작품·소품 통합 연습	11.20.(목) 18:00~21:00
24	무대 리허설	성과발표회 전 리허설	11.21.(금) 18:00~21:00
25	성과발표회	창작 발레 작품 공연	11.22.(토) 18:00~21:00



청춘 힐링 실버 발레



청춘 힐링 실버 발레



청춘 힐링 실버 발레





청춘 힐링 실버 발레



청춘 힐링 실버 발레



청춘 힐링 실버 발레



청춘 힐링 실버 발레



청춘 힐링 실버 발레



청춘 힐링 실버 발레





수업 후 소감

영덕 청춘힐링 실버발레 어르신들께 큰 박수를 보내며 인사드립니다.
청춘힐링 실버발레 강사 김명훈입니다.

영덕에서 노년 발레 수업을 시작한 지 어느덧 3년째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7월부터 수업을 시작하며, 단순한 동작 습득을 넘어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신체 변화와 움직임의 흐름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는 시간으로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발가락 근력 강화, 어깨 회전근 보강 등 노년기 근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움직임을 발레 동작에 자연스럽게 결합하고, 신나는 트롯 음악과 함께 즐겁게 풀어내며 몸과 마음이 함께 움직이는 수업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수업을 거듭할수록 어르신들의 자세와 움직임이 눈에 띄게 안정되고, 스스로 몸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모습이 깊어지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무대 경험을 통해 그 성장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9월에는 댄싱 노원 퍼레이드에 참여해 특별상을 수상하며, 영덕언니스만의 에너지와 팀워크를 외부 무대에서 당당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어 지역 축제 퍼레이드에서도 1등을 수상하며, 그동안의 연습과 노력이 값진 성과로 이어지는 순간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11월 성과발표회에서는 화려함보다도,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움직임과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무대를 즐기는 여유가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발레가 어렵고 낯선 장르가 아니라, 삶을 건강하게 지탱해주는 하나의 언어가 될 수 있음을 어르신들 스스로 증명해 주신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히 수업에 참여해 주신 영덕언니스 어르신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이 무대와 이 시간이 어르신들의 일상에 작은 설렘과 큰 힘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걸어갈 다음 시간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자 소감

- 처음에는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어느새 무대에 서 있는 제 모습을 보며 스스로가 참 대견했습니다. 9월 댄싱노원 퍼레이드에서 특별상까지 받게 되어, 이 나이에 이런 경험을 해도 되나 싶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 매주 수업이 기다려졌고, 연습이 쌓일수록 몸도 마음도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지역 축제 퍼레이드에서 1등을 했을 때, 그동안의 시간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 발레는 늘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11월 성과발표회 무대에 서서 관객을 바라보는 순간, 제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 연습할 때는 힘들어도 무대에 올라가니 모든 순간이 즐거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댄싱노원 퍼레이드에서 상을 받았을 때, 함께한 언니스들과 꼭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 집에만 머물던 제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역 축제 퍼레이드에서 1등이라는 결과까지 얻게 되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 몸이 아파 시작했지만, 지금은 걷는 자세부터 마음가짐까지 달라졌습니다. 성과발표회 무대에서 당당히 서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 처음에는 동작 하나도 어렵게 느껴졌는데, 반복하다 보니 무대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댄싱노원 퍼레이드 참여는 제 인생에 오래 기억될 특별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 트롯 음악에 맞춰 움직이며 웃고 연습했던 시간이 쌓여 큰 무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지역 축제 퍼레이드에서 받은 1등 상은 평생의 자랑입니다.
-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도전이 줄어들다고 생각했는데, 이 수업을 통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과발표회 무대는 제게 큰 용기를 안겨주었습니다.
- 혼자였다면 절대 하지 못했을 경험을 언니스들과 함께라서 해낼 수 있었습니다. 퍼레이드 무대에서 박수를 받던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 연습실에서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큰 무대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댄싱노원 퍼레이드에서 특별상을 받았을 때, 그동안의 노력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 이 나이에 상을 받고, 무대에 오르고, 사람들 앞에서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올해의 모든 경험이 제 삶에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기존프로그램:(기존 나) 새싹하모나이즈

○ 프로그램 개요

새싹하모나이즈는 아동을 대상으로 음악을 매개로 자기 표현과 협업 경험을 키워가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노래와 소리를 중심으로 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또래와 함께 소리를 맞추며 공동체 감각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영덕군의 생활권 안에서 정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아동들이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운영기간 및 일정

- 운영기간 : 2025년 7월 ~ 11월
- 운영횟수 : 총 25회
- 운영방식 : 주 1회 정기 수업
- 수업시간 : 회차당 180분
- 운영장소 : 예주생활문화센터 신돌석방

○ 강사진 구성

- 강사 : 김인수, 김민지
- 강사진 역할
 -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춘 음악·합창 활동 지도
 - 참여 아동의 개별 성향을 고려한 표현 활동 유도
 -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업 환경 조성 및 참여 지속 관리

○ 참여대상 및 인원

- 참여대상 : 영덕군 지역 아동(초등1~6학년)
- 참여인원 : 총 17명

○ 주요 교육 내용

- 놀이와 음악을 결합한 과정 중심 문화예술교육 운영
- 결과보다 참여 경험을 중시하는 아동 친화적 수업 구성
- 노래·리듬·소리를 매개로 한 자연스러운 자기 표현 활동
- 정기적 수업을 통한 문화예술 경험의 누적 및 확장



강사소개

○ 강사 김인수

- 부산대학교 성악과 졸업
- 2016 ~ 현재. 동일 프로이데 아카데미 프로이데폴(뮤지컬) 전임강사
- 2024. 7. ~ 11. 영덕문화관광재단 영덕 하모나이즈 뮤지컬 수업 강사
- 2023. ~ 현재. 포에마 콰이어&유스콰이어 총무 기획

○ 김민지

- 부산대학교 성악과 석사졸업
- 2016. ~ 현재. 동일 프로이데 아카데미 프로이데폴(뮤지컬) 외래교수
- 2024. 7. ~ 11. 영덕문화관광재단 영덕 하모나이즈 뮤지컬 수업 강사
- 2023.~ 현재. 포에마 콰이어&유스콰이어 지휘자





○ 세부프로그램 일정

회차	주제	주요 내용	일시
1	오리엔테이션	자기소개 및 움직임 게임을 통한 라포 형성	07.08.(화)15:00~18:00
2	뮤지컬 이해	뮤지컬 개념 이해 및 영상 감상	07.15.(화) 15:00~18:00
3	발성 연습	뮤지컬 발성과 대사 표현 기초	07.22.(화) 15:00~18:00
4	발음·억양 훈련	영어 발음 기호와 억양 이해	07.24.(목) 15:00~18:00
5	장면 리딩	뮤지컬 <마틸다> 장면 리딩	08.05.(화) 15:00~18:00
6	기초 동작 체험	기본 동작 및 안무 체험	08.12.(화) 15:00~18:00
7	노래·표현	영어 대사·노래를 활용한 장면 구성	08.19.(화) 15:00~18:00
8	상황극 놀이	감정 표현 중심 상황극	08.26.(화) 15:00~18:00
9	감정 표현 훈련	노래·움직임 결합 감정 표현	09.02.(화) 15:00~18:00
10	연기·안무 통합	역할 분석 및 연기·안무 통합	09.09.(화) 15:00~18:00
11	역할 배정	역할 분담 및 팀별 연습	09.16.(화) 15:00~18:00
12	파트 연습	대사 리듬·억양 훈련	09.23.(화) 15:00~18:00
13	대사 암기	노래와 감정 흐름 연결	09.30.(화) 15:00~18:00
14	안무 디테일	안무 완성도 및 동선 연습	10.14.(화) 15:00~18:00
15	합연습	노래·안무 통합 합연습	10.21.(화) 15:00~18:00
16	소품 탐색	장면별 소품 활용 및 창작	10.28.(화) 15:00~18:00
17	역할 전환	역할 바꿔 연기하며 공감 훈련	11.04.(화) 15:00~18:00
18	감정 심화	감정 인식·표현 단계 학습	11.11.(화) 15:00~18:00
19	조별 리허설	조별 장면·넘버 연습	11.14.(금) 15:00~18:00
20	전체 리허설	장면 연결 및 브릿지 구성	11.17.(월) 15:00~18:00
21	무대 동선	대극장 무대 동선 연습	11.18.(화) 15:00~18:00
22	테크 리허설	음향·조명 큐 맞추기	11.21.(금) 15:00~18:00
23	성과발표	성과발표회 무대 공연	11.22.(토) 15:00~18:00
24	오케스트라 리허설	오케스트라 반주에 노래 맞춰보기	11.24.(월) 15:00~18:00
25	오케스트라 공연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발표	11.25.(화) 16:00~19:00



새싹하모나이즈



새싹하모나이즈



새싹하모나이즈





새싹하모나이즈



새싹하모나이즈



새싹하모나이즈



새싹하모나이즈



새싹하모나이즈



새싹하모나이즈





수업 후 소감

이번 새싹 하모니즈와의 뮤지컬 수업은 제게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고 가까이에서 함께 호흡하다 보니, 연습을 거듭할수록 조금씩 변화해가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소리를 내어 노래하는 것조차 낯설어하던 아이들이 점점 더 집중하고,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열심히 표현해내는 모습은 그 어떤 성공적인 공연보다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특히 춤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추며,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 멋진 예술'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빛나는 눈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기쁩니다. 무대 위에서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마음과 태도에서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보여준 노력과 웃음, 그리고 용기는 제게 큰 선물과도 같았고, 이번 수업은 제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아름다운 장면이 되었습니다.

- 아이들에게 한마디 -

우리 새싹이들, 함께한 시간 동안 선생님은 정말 많이 행복했어요! 너희가 보여준 열정과 노력은 무엇보다도 환하게 빛났고, 그 모습은 진정한 예술가의 마음 그 자체였어. 앞으로도 지금처럼 마음을 다해 도전하고, 스스로를 칭찬할 줄 알며, 음악을 통해 감사와 행복을 느낄 줄 아는 멋진 친구들이 되길 바라. 선생님은 언제나 너희를 응원할게!



참여자 소감

- 처음에는 노래를 크게 부르는 게 부끄러웠는데, 수업을 하면서 점점 목소리가 커졌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연습하니깐 더 재미있었어요.
- 뮤지컬 수업에서 노래랑 연기를 같이 배워서 좋았어요. 대사를 말할 때 감정을 넣는 게 재미있었어요.
- 처음에는 영어 대사가 어려웠는데, 여러 번 따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보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 친구들과 역할을 나눠서 연습하는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서로 도와주면서 연습해서 더 친해졌어요.
- 노래만 부르는 수업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표현하는 게 재미있었어요. 몸으로 이야기하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요.
- 수업 시간마다 다른 활동을 해서 지루하지 않았어요. 상황극 놀이를 할 때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 처음에는 실수할까 봐 걱정했는데, 선생님이 괜찮다고 해줘서 편하게 할 수 있었어요. 연습할수록 더 잘하고 싶어졌어요.
- 친구들 앞에서 대사를 말하는 게 무서웠는데, 지금은 조금 떨려도 할 수 있어요. 수업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 노래를 부르면서 감정을 생각하는 게 어려웠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연습하면서 제 목소리를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 뮤지컬 수업을 하면서 말하는 것도 또박또박 하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발표할 때도 도움이 되었어요.
- 처음엔 영어 대사가 어려웠는데 계속 연습하다 보니 할 수 있게 되었어요. 11월 25일 오케스트라 공연은 제 인생에서 처음 서 본 큰 무대였어요.
- 11월 22일 성과발표 무대에 섰을 때 많이 떨렸지만, 연습했던 걸 떠올리며 끝까지 할 수 있어서 부똥했어요.





신규프로그램:(신규 가) YOUNG DRUM

○ 프로그램 개요

YOUNG DRUM은 영덕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드럼라인과 바투카다 리듬을 결합한 퍼포먼스 중심의 신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기존의 기능 중심 타악 교육에서 벗어나, 리듬을 매개로 한 자기표현과 협동 경험을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청소년이 '연주자'가 아닌 함께 리듬을 만들어가는 창작 주체로 참여하도록 기획되었다. 역에 정착한 청년예술단체(NIM)의 바투카다 경험과, 신규 유입된 전문 퍼커션 강사의 드럼라인 제안을 접목하여, 규칙성과 자유로움이 공존하는 영덕형 리듬 퍼포먼스 교육으로 발전시켰다.

○ 운영기간 및 일정

- 운영기간 : 2025년 7월 ~ 11월(실교육기간: 9월 ~ 11월)
- 운영구성 :
 - 사전 개발회의(총 6차)
 - 오픈클래스 운영(소규모학교 연계, 총 4회)
 - 정규 교육과정 운영(총 20회차 내외)
- 운영방식 : 주 1회 정기 수업 / 단계별(기초-응용-퍼포먼스-공유) 순환 구조
- 수업시간 : 회차당 180분
- 운영장소 : 예주생활문화센터 미래창조방

○ 강사진 구성

- 주강사 : 김광훈
- 보조강사 : 주현우, 이의연
- 강사진 역할
 - 강사진은 단순 기술 전달자가 아닌, 참여자의 리듬 제안을 연결
 - 즉흥 연주를 퍼포먼스로 확장하며 '틀려도 괜찮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 참여대상 및 인원

- 참여대상 : 영덕군 지역 아동 청소년
- 참여인원 : 총 20명

○ 주요 교육 내용

- 리듬 기초 - 몸으로 느끼는 리듬
- 리듬 응용 - 악기와 즉흥의 확장
- 퍼포먼스 구성 - 협업과 리더십 경험
- 결과 공유 - 무대 경험과 성취감 및 과정 중심의 결과 공유에 초점

○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배경

영덕 지역 청소년들은 문화예술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한적이며, 예체능 교육을 위해 인근 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재단은 지역 안에서 청소년의 에너지와 표현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신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청소년 대상 신규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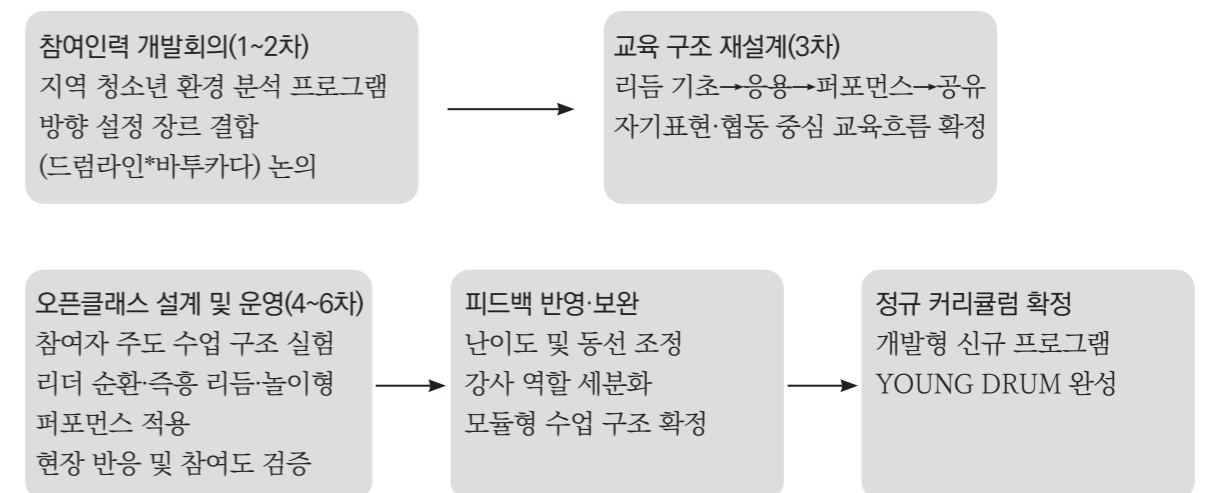
○ 개발 추진 방식

YOUNG DRUM은 단일 기획자가 설계한 프로그램이 아닌, 현장 강사·청년 예술단체·재단 담당자가 함께 참여한 공동 개발형 프로그램으로 추진 개발 과정 전반에 걸쳐

- 참여자 특성 분석
- 교육 목표 재설정
- 수업 구조 실험 및 검증

의 단계를 거쳐 단계적으로 완성도를 높였다.

○ 개발 프로세스 및 의의



기획-회의-실험-수정-확정의 단계적 개발 과정을 통해 현장 적합성과 교육 완성도를 동시에 확보한 영덕형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개발 사례



○ 개발 회의 및 단계별 추진 과정

<p>① 1차 개발 회의 : 프로그램 방향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논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덕 청소년의 문화예술 환경 및 수요분석 - 기존 바투카다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한 확장가능성 논의 - 드럼라인 퍼포먼스 도입 제안 및 장르결합 방향 설정 • 도출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럼라인의 규칙성과 바투카다의 즉흥성을 결합한 신규 모델 구상 	<p>② 2차 개발 회의:교육 철학 및 구조 재정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논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중심 교육의 한계 인식 - 청소년의 흥미·자발성을 중심에 둔 교육 목표 설정 - 게임형 리듬 학습, 즉흥 창작 요소 도입 논의 • 도출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계획서 보완 및 전면 재구성 결정 - ‘함께 만들어가는 리듬’ 중심의 교육 구조 확정
<p>③ 3차 개발 회의 : 단계별 교육 흐름 설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논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전체 흐름 구조화 - 참여자의 성장 과정을 고려한 단계 구분 • 도출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단계 교육 흐름 확립 - 리듬기초 → 리듬응용 → 퍼포먼스구성 → 결과공유 - 자기표현·협동·성취 경험을 핵심 성과로 설정 	<p>④ 4차 개발 회의 : 오픈클래스 및 무대 공유 방식 설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논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픈클래스의 목적 재정의 - 단순 발표가 아닌 과정 공유형 무대 기획 - 생활도구·신체 리듬 활용 등 접근성 강화 방안 논의 • 도출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형 퍼포먼스 구조 도입 - 콜 앤 리스폰스, 즉흥 세션, 전체 합주 구성 확정
<p>⑤ 5차 개발 회의 : 정규 교육 전 최종 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논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회차 내외 정규 커리큘럼 점검 - 악기 운용, 동선, 난이도 조정 - 보조강사 역할 세분화 • 도출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듈형 수업 구조 확정 - 리더 시범-응답 구조 명확화 	<p>⑥ 6차 개발 회의 : 오픈클래스 수업 설계 및 검증 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논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주도성 검증을 위한 오픈클래스 설계 - 리더십 부담 완화를 위한 활동 구조 논의 • 도출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더 순환 구조 - 2~3인 조합형 리더십 - 신체·제스처 기반 신호 체계 도입



강사소개

○ 강사 김광훈

- 계명대학교 관현악과 타악전공
- 2022. ~ 현재. 경상북도 교육청 문화원 윈드오케스트라 강사
- 2022. ~ 현재. 유강초등학교 오케스트라 강사
- 2021. ~ 현재. 유림초등학교 오케스트라 강사

○ 보조강사 주현우

-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졸업
- 2022.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두드림> 강사
- 2024. ~ 현재. 경북문화재단 경북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너나들이> 강사

○ 보조강사 이의연

- 2022.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두드림> 강사
- 2023. 영덕문화관광재단 바투카다 재활용 악기 학교 방과후 교육강사
- 2024. ~ 현재. 경북문화재단 경북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너나들이> 강사





○ 세부프로그램 일정

회차	주제	주요 내용	일시
1	오리엔테이션	자기소개 및 게임을 통한 라포 형성	09.01.(월) 18:00~21:00
2	리듬과 친해지기	바디퍼커션과 리듬 게임을 통한 리듬 감각 익히기	09.08.(월) 18:00~21:00
3	다양한 리듬 교육	4·8·12박자 이해 및 리듬 쪼개기	09.15.(월) 18:00~21:00
4	악기와 친해지기	드럼라인 악기 이해 및 합주 체험	09.22.(월) 18:00~21:00
5	기본박자 1	드럼라인 기본 리듬 학습	09.29.(월) 18:00~21:00
6	기본박자 2	기본 리듬 복습 및 확장	10.02.(목) 18:00~21:00
7	선호 박자 탐색	좋아하는 박자 공유 및 설명	10.13.(월) 18:00~21:00
8	리듬 창작 1	개인·팀별 리듬 창작 및 즉흥 연주	10.20.(월) 18:00~21:00
9	리듬 창작 2	스토리텔링 기반 리듬 구성	10.27.(월) 18:00~21:00
10	리듬 창작 3	리듬 발표 및 감상	10.30.(목) 18:00~21:00
11	퍼포먼스 기획	공연 주제 설정 및 장면 구상	11.03.(월) 18:00~21:00
12	스토리보드 구성	장면별 리듬·동작 구성	11.06.(목) 18:00~21:00
13	악기 꾸미기	나만의 악기 제작 및 발표	11.10.(월) 18:00~21:00
14	창작 퍼포먼스 1	리듬·동선 결합 퍼포먼스 창작	11.13.(목) 18:00~21:00
15	창작 퍼포먼스 2	장면 연결 및 브릿지 구성	11.17.(월) 18:00~21:00
16	창작 퍼포먼스 3	의상·캐릭터 설정 및 완성	11.19.(수) 18:00~21:00
17	무대 리허설	공연 전 리허설	11.21.(금) 18:00~21:00
18	성과공유회	드럼라인 퍼포먼스 발표	11.22.(토) 18:00~21:00
19	소감 나누기	성과발표 소감 공유 및 기록	12.01.(월) 15:00~18:00
20	교육 성찰	차년도 교육 방향 논의	12.08.(월) 15:00~18:00



YOUNG DRUM



YOUNG DRUM



YOUNG DRUM





YOUNG DRUM



YOUNG DRUM



YOUNG DRUM



YOUNG DRUM



YOUNG DRUM



YOUNG DRUM





YOUNG DR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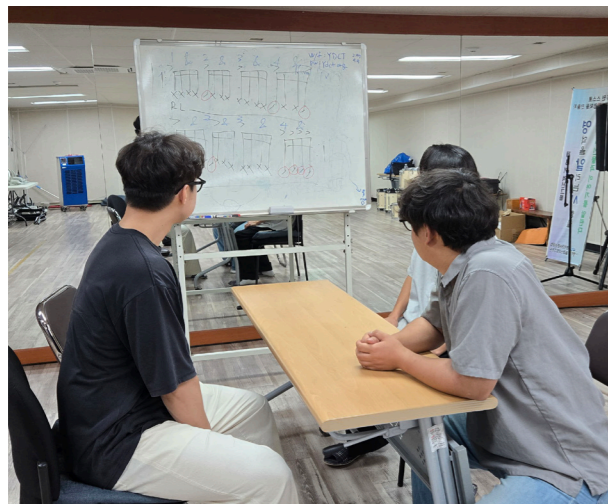
YOUNG DRUM



YOUNG DRUM



YOUNG DRUM



YOUNG DRUM



YOUNG DRUM



수업 후 소감

김광훈

YOUNG DRUM 수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교실에 들어온 아이들의 표정은 기대와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드럼을 쳐본 적이 없는 아이도 있었고, 친구들 앞에서 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 보이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수업에서는 악기보다 먼저 서로 얼굴을 보고 웃는 시간, 박수와 발소리로 몸을 푸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첫 리듬이 되었습니다.

수업이 이어지면서 아이들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해도 돼요?”라고 조심스럽게 묻던 아이가, 어느 날은 먼저 손을 들고 리듬을 제안했습니다. 그 리듬을 친구들이 따라 주자, 아이의 얼굴에 번지던 웃음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가 아니라, 자기 소리를 냈다는 경험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되는지 현장에서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퍼포먼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아이들 각자의 성격과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힘차게 치며 분위기를 이끄는 아이도 있었고, 뒤에서 친구들의 리듬을 살피며 전체를 정리해 주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앞에 서고, 누군가는 옆에서 받쳐 주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함께 만드는 무대’가 무엇인지 배워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도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성과공유회 무대에 오르기 전, 긴장한 얼굴로 서로 손을 맞잡고 있던 아이들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무대 위에서는 연습 때보다 더 집중된 모습으로 끝까지 리듬을 이어갔고, 공연이 끝난 뒤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하듯 웃던 순간은 이 수업이 아이들에게 남긴 가장 큰 장면이었습니다.

YOUNG DRUM은 아이들에게 드럼을 가르친 시간이었지만, 제게는 아이들과 같은 속도로 걸으며 기다리는 법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발 내딛던 아이들이 자신만의 리듬을 찾는 과정을 함께할 수 있어 감사했고, 이 시간이 아이들 마음속에 오래 남는 따뜻한 기억으로 자리하길 바랍니다.



참여자 소감

- 처음에는 드럼을 잘 몰랐는데, 몸으로 리듬을 느끼는 것부터 시작해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었어요. 점점 리듬을 만드는 게 재미있어졌어요.
- 친구들이랑 같이 리듬을 맞추다 보니 서로 더 가까워졌어요. 내가 만든 리듬을 친구들이 따라해줄 때 뿌듯했어요.
- 틀려도 괜찮다고 해줘서 편하게 할 수 있었어요. 수업을 하면서 자신감이 조금씩 생겼어요.
- 악기가 없어도 박수랑 발로 리듬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평소에도 소리를 들으면 리듬을 생각하게 돼요.
- 처음엔 앞에 나가서 리듬을 이끄는 게 무서웠는데, 해보니까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리듬을 외우는 게 아니라 친구들 소리를 들으면서 맞춰가는 게 좋았어요. 같이 만드는 느낌이어서 더 기억에 남아요.
- 무대에서 공연했을 때 긴장했지만 연습한 대로 하니 잘 끝낼 수 있었어요. 끝나고 나서 정말 뿌듯했어요.
- YOUNG DRUM을 하면서 음악이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다음에도 이런 수업이 있으면 또 참여하고 싶어요.





신규프로그램:(신규 나) 다시, 이곳을 그리다

○ 프로그램 개요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거나 변화된 환경을 마주한 지역 주민들이 예술을 매개로 자신의 기억과 감정을 되짚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과정을 통해 정서적 회복과 공동체적 연대를 경험하도록 기획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산불이라는 공동의 사건을 겪은 주민들이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기억을 마주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공감하는 구조를 통해 개인의 상처를 공동체의 서사로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운영기간 및 일정

- 운영기간 : 2025년 7월 ~ 11월(실교육기간: 9월 ~ 11월)

- 운영구성 :

- 사전 개발회의(총 8차)
- 오픈클래스 운영(지역 동호회 연계 총 2회)
- 정규 교육과정 운영(총 20회차 내외)

- 운영방식 : 주 2회 정기 수업 / 기록(사진)-표현(드로잉)-나눔(담화)

- 수업시간 : 회차당 180분

- 운영장소 : 제주생활문화센터 미래창조방

○ 강사진 구성

- 주강사 : 김은형, 김현주

- 보조강사 : 지은석

- 강사진 역할

- 개인의 기억과 감정을 드로잉 중심의 시각적 표현으로 이끌어내는 역할
- 참여자의 말·표정·행동을 기록으로 남겨 기록집 제작을 위한 기초 자료 구축

○ 참여대상 및 인원

- 참여대상 : 영덕군 지역 중장년 주민

- 참여인원 : 총 25명

○ 주요 교육 내용

- 정서 흐름을 따라가는 5단계 구성(핵심 운영 원리)

- 회고(도입): 나의 과거·가족·마을의 기억을 꺼내며 라포 형성
- 상실(마주하기): 산불 이후 변화·상처를 '말' 대신 '그림/사진'으로 안전하게 다루기



- 회복(전환): 서로의 경험을 듣고 공감하며 정서적 지지망 형성
- 재구성(의미 만들기): 흩어진 기억을 장면·주제로 엮어 '나의 이야기'로 정리
- 미래(확장): 앞으로의 삶과 마을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 기록으로 완성

○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배경

「다시, 이곳을 그리다」는 영덕 지역 산불 이후 삶의 터전과 기억을 잃은 주민들이 예술을 통해 감정을 회복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도록 기획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재난 이후 물리적 복구 중심의 지원을 넘어, 개인의 상실과 기억을 차분히 꺼내고 나눌 수 있는 예술적 장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 개발 추진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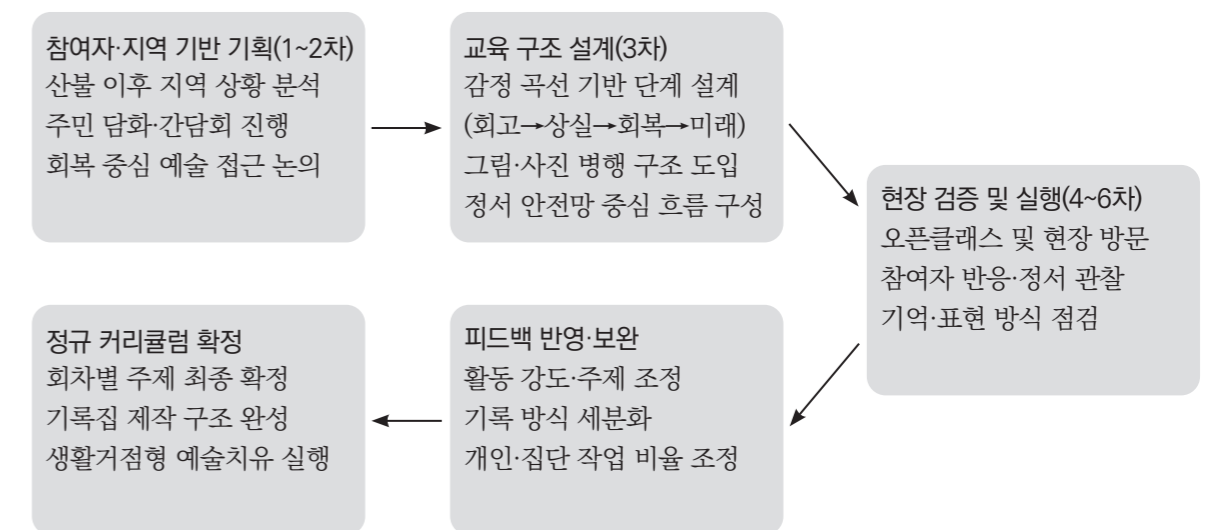
본 프로그램은 사전 완결형 기획이 아닌, 회의-현장 검토-수정-보완을 반복하는 개발형 추진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강사진 및 운영진 중심의 기획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이후 지역 주민 간담회 및 예비 참여자 담화를 통해 실제 참여자의 감정 상태와 표현 방식, 참여 부담 요소를 점검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 감정의 흐름을 고려한 단계적 회차 구성
- 그림, 사진, 구술 기록을 병행하는 표현 방식
- 참여자의 정서적 안전을 우선한 활동 설계

등을 지속적으로 조정·보완하며 프로그램을 구체화하였다.

○ 개발프로세스 및 의의



기획 → 논의 → 현장 검증 → 수정 → 실행의 단계적 개발 과정을 통해 참여자의 삶과 기억을 중심에 둔 교육 구조와 현장 적합성·정서적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한 재난 이후 지역 대상 개발형 문화예술교육 사례



○ 개발 회의 및 단계별 추진 과정

<p>① 1차 개발 회의 : 기획 및 방향 설정 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불 이후 지역 상황과 주민 정서를 고려한 프로그램 필요성 논의 • 예술을 매개로 기억과 감정을 안전하게 꺼낼 수 있는 교육 방향 설정 • 그림과 사진을 병행한 기록 방식 도입 논의 • 지역 주민 담화를 통해 실제 요구와 참여 가능성 확인 	<p>② 2차 개발 회의 : 구조 설계 및 정서 흐름 구성 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의 정서 특성을 반영한 교육 구조 설계 • ‘회고-상실-회복-재구성-미래’로 이어지는 감정의 흐름 정리 • 단계별 접근을 통해 참여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교육 설계 방향 확정
<p>③ 3차 개발 회의 : 회차별 주제 개발 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슬픔·상실·희망)과 공간(집·마을·터전)을 결합한 회차별 주제 도출 • 주민의 경험과 기억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언어와 활동 구성 • 기록집 제작을 염두에 둔 주제 흐름 정비 	<p>④ 4차 개발 회의 : 세부 운영 설계 및 준비 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차별 활동 내용, 준비물, 기록 방식 구체화 • 참여자 피로도와 정서 안전을 고려한 운영 일정 조정 • 개인 표현 → 공동 나눔 → 미래 메시지로 이어지는 수업 구조 확정 • 사진·구술·그림을 병행한 기록 체계 마련
<p>⑤ 5차 개발 회의 : 예비 참여자 간담회 및 현장 검증 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 참여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프로그램 이해도 및 수용성 점검 • 주민 반응을 통해 표현 방식과 질문 수준 조정 • 참여 의사 확인 및 프로그램 실행 가능성 검증 	<p>⑥ 6차 개발 회의 : 정서 안전망 및 기록 방식 보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이 깊어지는 구간에서의 정서적 안전 장치 논의 • 소규모 대화, 휴식, 완충 활동 설계 • 참여자의 말·표정·행동까지 기록하는 관찰 중심 기록 방식 확정
<p>⑦ 7차 개발회의 : 예비 참여자 간담회 결과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 참여자 간담회 결과 공유 • 표현 방식, 질문 수준, 활동 난이도 조정 • 실제 참여 가능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구조 재정비 	<p>⑧ 8차 개발회의 : 최종 운영계획 확정 (8월 19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차별 운영계획, 인력 역할, 기록 체계 최종 확정 • 실행 단계에서의 역할 분담 및 운영 동선 점검 • 오픈클래스 및 본 수업 실행 준비 완료

강사소개

○ 강사 김은형

-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체육학과 무용전공 석사졸업
- 2023. ~ 현재. CN아트 문화예술교육팀 기획실장
- 2021. ~ 2022.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화예술교육연구소 팀장
- 2020. ~ 2021.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화예술교육센터 팀장

○ 강사 김현주

- 계명대학교 관현악과 타악전공
- 2024. 영덕문화관광재단 꿈다락문화예술학교 펜끝에서 춤추는 영덕 강사
- 2011. ~ 현재. 풀잎문화센터 포항점 캘리, 수채화, 어반드로잉 등 미술 다수과목 강사
- 2013. 포스코 미술교육 강사

○ 보조강사 지은석

- 서울예술대학 광고창작과 졸업
- 2024. ~ 현재. 문화예술 NGO 길스토리 자립준비청년작가 멘토링 강사
- 2021. ~ 현재. KULTURE 국가무형유산 아카이빙 프로젝트 참여 작가





○ 세부프로그램 일정

회차	주제	주요 내용	일시
1	나의 과거, 나의 마을	과거의 나와 가족, 마을의 기억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감정과 기억을 나누는 시간	09.02.(화) 18:00~21:00
2	내가 기억하는 장소	기억 속 장소를 현재의 모습으로 기록하고 공간에 얽힌 감정을 공유	09.06.(토) 10:00~13:00
3	내가 기억하는 장소그리기	장소에 내재된 감정을 색과 형태로 시각화	09.09.(화) 18:00~21:00
4	나의 삶의 터전	집과 일터 등 삶의 공간을 돌아보며 변화와 상실을 비교·표현	09.13.(토) 10:00~13:00
5	산불 이후의 변화 ①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실을 예술로 안전하게 표출	09.16.(화) 18:00~21:00
6	산불 이후의 변화 ②	산불 이후의 마을과 사라진 공간을 사진·드로잉으로 표현	09.20.(토) 10:00~13:00
7	감정의 조각 모음	감정을 선·색·질감 등으로 추상화하여 탐색	09.23.(화) 18:00~21:00
8	감정을 넘어, 의미로	감정 너머의 나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의미로 전환	09.27.(토) 10:00~13:00
9	다시 그려보는 나의 공간	잃었던 공간을 상상으로 재구성하며 개인의 공간 고민 나눔	09.30.(화) 18:00~21:00
10	상상으로 이어진 마을	개인의 상상을 연결해 하나의 마을 공동 창작	10.11.(토) 10:00~13:00
11	내가 바라는 내일	미래의 마을과 일상을 상상하며 희망 표현	10.14.(화) 18:00~21:00
12	희망의 색깔	'희망'이라는 감정을 자유롭게 시각화	10.18.(토) 10:00~13:00
13	전환점 만들기	감정 여정을 되돌아보며 나만의 변화 시점 시각화	10.21.(화) 18:00~21:00
14	기록집 구상	창작물과 이야기를 바탕으로 기록집 구성 시작	10.25.(토) 10:00~13:00
15	기록집 제작	그림 정리 및 글 작성, 공동 기록물 제작	11.04.(화) 18:00~21:00
16	미래를 그리다	미래의 마을을 상상하며 회복 메시지 담기	11.11.(화) 18:00~21:00
17	성과공유회 준비	작품 배치 및 스토리텔링 구성	11.18.(금) 18:00~21:00
18	성과공유회	관람객 대상 큐레이팅 및 작품 공유	11.22.(토) 10:00~13:00
19	성과공유회 소감 나누기	참여 소감 및 관람객 반응 공유	11.25.(화) 18:00~21:00
20	다음년도 그리고 싶은 것	차년도 교육에 대한 의견 나누기 및 마인드맵 활동	11.29.(토) 10:00~13:00



다시, 이곳을 그리다



다시, 이곳을 그리다



다시, 이곳을 그리다



다시, 이곳을 그리다



다시, 이곳을 그리다



다시, 이곳을 그리다



다시, 이곳을 그리다



다시, 이곳을 그리다



다시, 이곳을 그리다





다시, 이곳을 그리다



다시, 이곳을 그리다



다시, 이곳을 그리다



수업 후 소감

김현주

어반드로잉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기며 그릴수 있는 그림으로 도시 풍경이나 주변 다양한 모습 등을 그리는 드로잉으로 미술 기본이론과 기법 수업을 하였습니다.

참여 수강생 모든 분들이 열심히 임해주셨으며 매주 하나하나 배워가시면서 실력 향상하시는 모습에 강사로서 뿌듯함을 많이 느꼈던 한해 였습니다.

한 수강생은 멀리 울릉도로 일을 하러 가셨는데 너무 수업이 재미 있어서 수업참여를 위해 일을 빨리 끝내시고 어렵게 오셨다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에나 그 멀리서.....

강사로서 몸둘바를 모를 정도로 감동과 뿌듯함에 더 노력 해야겠다고 다짐하며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수강생분들 중에는 물론 어렵다는 분들도 계셨고 몇번 시도끝에 어렵게 신청되어 기쁘게 수업하신분들도 계셨는데 끝까지 저와 함께 한 수강생분들의 그림은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 실력으로 전시회까지 무사히 마치게되어 그동안 저를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신 모든 수강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1년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강의에 협조해주시고 도움 되어주신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여자 소감

산불을 기록하는것이 앞으로의 회복을 위한 시작이라는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그렸고
“그림 한장이 영덕의 기억과 희망을 연결하는 매개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다.”
영덕군과 문화재단에 감사드립니다

영덕 화재 현장의 참혹했던 상황을 그림으로 기록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잿더미로 변한 주택과
양상한 산, 그리고 어촌 마을의 풍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
도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새 생명이 돌아 숲을 이루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들
씩 다시 세워지는 보금자리의 모습은 깊은 감동과 함께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이러한 풍경들을 다시
금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기대감을 느낍니다.

1년 동안 어반드로잉과 사진 수업, 영상 만들기 수업을 들으며 일상 속에서 새로운 시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진을 찍을 때 구도와 시선의 흐름을 고민하게 되어 예전과는 다른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게 된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 수업이 아니었다면 절대 해보지 않았을 도전들을 경험하면서 제 안의 가능성과 취향을
조금 더 넓힐 수 있었던 것이 제겐 큰 수확이었습니다. 떠밀리 듯 채운 과제도 있었지만 그 덕분에 성
취감도 많았던 수업이었습니다. 수업을 함께한 동아리 회원분들의 반짝이는 열정과 에너지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 수업 시간이 즐겁고 설레었습니다.

이번 1년은 새로운 시도와 배움,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가득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영덕 산불 그 후의 모습을 다시 그려보는 시간
그림을 그린다는 건 잊기 위한 일이 아니라
기억하고 기록하며 치유하는 과정임을 다시 느꼈습니다.
아픈 순간도, 소중한 풍경도, 사람들의 마음도
종이 위에 남겨두며
영덕의 시간들을 함께 지켜가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펜으로 스케치한 캔버스위에 색감을 더해나가며 차분한 마음으로 나자신을 다져가는 좋은 시간이였
고 함께한 회원님들과 소통할수있는 귀한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일상의 작은 장면들을 종이
위에 담아내며 더 성장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어반드로잉 하면서 시간만 내면 어디서든 할 수 있어 좋은것 같고 원하는 그림은 안 나올수 있지만 즐
기면서 스스로도 할 수 있다는것이 좋았습니다.



2025년 봄, 엄청난 산불이 의성에서 영덕으로 넘어왔다.
살아숨쉬던 산과 땅이 한순간에 검은 재로 무너져내렸고 그것은 너무도 가슴아픈 사건이었다.
불타버린 산과 집, 자동차 등등 그리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
그 고통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다짐을 하게 하는 것이었다.
산불이란 재앙의 흔적은 고통과 절망만이 아닌 그 속에서 다시 피어날 생명과 희망을 위해 자연과 인
간이 함께 이겨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며 산불현장 그리기 ‘다이그’를 하면서 우리의 그림들이 사람
들의 마음에 닿아 자연에 대한 소중함과 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3. 프로그램을 마치며





2026년도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생활거점형

2026년 영덕 꿈다락 문화예술학교는 그동안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단기적 체험 중심을 넘어 지속 가능한 생활권 문화예술교육 구조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특히 2025년 운영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연령과 장르를 구분하기보다 삶의 단계와 지역 맥락에 맞춘 교육 설계가 중요함을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다음의 방향을 중심으로 교육을 확장하고자 한다.

주요 운영 방향

- 찾아가는 생활거점형 운영 확대
 - 읍·면 단위 생활권 분석을 기반으로, 참여자가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마을 안 교육' 구조를 강화한다.
- 영덕형 교육 콘텐츠 고도화
 - 2025년에 시도한 신규·개발형 프로그램(YOUNG DRUM, 다시 이곳을 그리다 등)을 중심으로 영덕의 환경·기억·사람을 담은 지역 맞춤형 콘텐츠를 정리·발전시킨다.
- 지역 예술가 양성 및 협업 구조 강화
 - 외부 강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예술가가 교육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워크숍·공동 기획·보조강사 참여 등 단계적 참여 구조를 확대한다.
- 과정 중심 성과관리 및 기록 강화
 - 결과 발표에 그치지 않고, 교육 과정과 참여자의 변화가 축적되는 기록 체계를 마련하여 생활거점형 문화예술교육의 의미를 지역 안에 남긴다.

목표 : 2026년 영덕 꿈다락은 '운영되는 사업'이 아닌 '작동하는 구조'로서의 생활거점형 모델로 목표



이 사업을 마치며

이 자료집을 정리하며, 나는 다시 한 번 '사업'을 했던 시간이 아니라 사람을 만났던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처음 이 사업을 맡았을 때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운영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기준에 맞출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앞에 놓인 질문은 조금씩 달라졌다.

"이 수업이 이 사람의 하루에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

"이 시간이 이 지역에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

아이들이 북을 두드리며 스스로의 리듬을 찾아가던 순간, 어른들이 몸을 움직이며 웃음을 되찾던 시간, 산불 이후의 기억을 조심스럽게 꺼내 그림으로 남기던 장면들 속에서 나는 '문화예술교육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새롭게 배웠다.

영덕은 작은 지역이고, 모든 것이 충분하지는 않다.

그래서 오히려 이곳에서는 사람 한 명, 수업 한 회차, 선택 하나가 더 크게 다가온다. 그 무게를 알게 된 한 해였다.

2025년의 생활거점형은 완성형이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히 방향은 생겼고, 이 지역에 맞는 언어와 방식이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 과정 한가운데에서 기획자로서, 행정 담당자로서, 그리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 사업을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큰 배움이었다.

2026년에는 더 많은 것을 하기보다, 지금까지 만들어온 것들이 영덕 안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단단하게 이 길을 이어가고 싶다.

발행일 | 2025. 12. 31.

발행처 | 영덕문화관광재단

기획·진행 | 문화예술팀 김민섭 팀장

예술교육 | 김명주 주임, 어영훈 주임, 윤선경 주임

연락처 | 054-730-5830

주소 | 경북 영덕군 영해면 318만세길 36 2층

홈페이지 | www.ydct.org

디자인 | 뽀튼지 이선희



꿈다락 문화예술학교